

하나 글로벌 리서치

2021년 6월 4일 | 미국

4차산업 포트폴리오 월간 리뷰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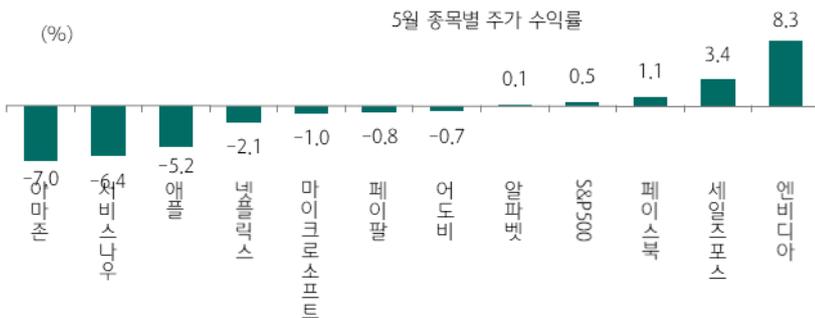


투자선호도	해외기업 분석 김재임	RA 김동우
★★★★☆	jamie@hanafn.com	dong-woo.kim@hanafn.com

미국 주식시장 동향: 테크주와 경기민감주 간의 시소게임 같은 섹터 로테이션

- 올해 미국 시장은 테크주를 중심으로한 성장주와 금융, 산업재 등이 이끄는 경제 회복 수혜주가 서로 시소게임 하듯이 섹터 로테이션 진행. 과거 대비 양쪽을 오가는 섹터 로테이션 속도가 빨라졌음, 양 진영 모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표 종목 들은 밸류에이션이 각각의 밴드 상단 수준이고 불확실성 요소 상존.
-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전체 시장 이슈와 섹터에 대한 센터먼트가 주가에 영향. 4월 테크주가 일정 수준 반등을 보인 후 5월 에 테크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시 약화되고 산업재, 원자재 중심의 반등. 5월 말 이후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경계 모드.
- 향후 주가 방향에 영향을 줄 요인은 6월 15일~16일 진행되는 FOMC 회의. 시장 컨센은 6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연준의장의 입장이 기존과 같고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기존 스탠스 유지하면 시장의 움직임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테크주와 경기민감주 모두 상승 전망. 현재 시장에서의 경계 심리는 연 준의장이 일부 위원들에 동조하여 6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됨

4차산업 포트폴리오 주요 종목 5월 리뷰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아마존, 애플, 서비스나우는 S&P500 대비 최근 1개월 & YTD 기준 모두 부진
- 개별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2020년 언택트 대표 수혜주로 높은 주가 상승 이후 반대 급부적 성격의 하락
- 알파벳, 페이스북은 YTD 기준 시장대비 크게 아웃퍼폼. 두 종목은 2020년 기업의 광고 비용 감축 영향으로 FAANG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부진 후 올해 들어서는 기업의 디지털 광고 비용 집행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 견인.
-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는 1QFY22 실적과 2Q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을 상회하고 FY22년에 대해 고무적인 전망을 내면서 5월 시장 대비 아웃퍼폼

I차산업 포트폴리오 개별 종목 최근 이슈 코멘트

1. 애플(AAPL.US): 아이폰 수요와 고객 충성도는 과거 어느때보다 좋아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들은 아이폰 수요와 고객 충성도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점 확인

1)향후 12개월 내에 아이폰 구매 의향 22%까지 증가, 지난 5년 중 최고치. 아이폰 기존 고객의 유지율 86%로 지난 7년내 최고치 → 애플의 아이폰 충성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확인.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향후 아이폰 구매 의향 비중이 전년대비 견고한 증가세 확인(중국은 전년대비 flat).

- 높은 아이폰 유지율은 향후 아이폰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안정적인 것 시사
- 2) 5G폰에 대한 관심 상승, 향후 5G폰으로 업그레이드 수요 높을 것 시사
 - 최근 시장에서의 서베이 결과는 이전 결과 대비 아이폰과 전체적인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전망 확인
 - FY21년과 FY22년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미국내 Buy-side 컨센은 각각 2.25억대, 2.2억 대 수준
 - 밝은 아이폰 수요 전망과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에 대한 높은 충성도는 애플의 서비스 매출액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전망

2. 아마존(AMZN.US): e-commerce 시장 점유율 증가 & MGM 인수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1) e-commerce 매출 성장 폭 둔화는 시장 예상대비 적을 것

- 미국 e-commerce 시장은 1분기에 정부의 소비진작 개인 보조금 지급 효과로 고성장세 지속.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타겟 등 온라인 리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자들 전년대비 매출 고성장세 지속
- 2분기부터 e-commerce 시장 전년동기대비 성장 속도는 둔화, 그러나 아마존은 올해 미국 e-commerce 시장 점유율 확대 폭이 주요 경쟁사 대비 더 큰 것으로 최근 시장 조사에서 시사
- 아마존의 미국 e-commerce 시장 점유율은 2020년 약 43%에서 2021년 45%로 상승, 월마트는 2020년 7%에서 2021년 8%, 타겟은 2020년과 2021년 2%로 유지, 이베이는 2020년 5%에서 2021년 4%로 축소 전망
-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주요 경쟁사 대비 확대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2분기에 프라임 데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2분기에 성장 감소폭은 시장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은 컨센 상회 가능성 높음.

2) MGM 인수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 MGM 인수는 프라임 회원에게 제공하는 OTT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프라임 회원 가입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면서 ‘프라임 비디오’ 단독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프라임 회원의 경우 일반 회원 대비 아마존의 플랫폼에서 지출액이 2배~3배 더 높아 단순 수치이상의 실적 기여. 프라임 회원 증가세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프라임 비디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스트리밍 서비스.
- 최근 OTT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가입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투자 단행. 대형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M&A를 통해서 콘텐츠 경쟁력 단시간에 크게 확대.
- 중장기적으로 코드커팅 현상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고 빠른 기술 발전은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로 이어져서 콘텐츠 경쟁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 인수를 통한 콘텐츠 확보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아마존은 콘텐츠 경쟁력에서는 주요 경쟁사 대비 다소 뒤쳐져 왔기에 최근 집중적으로 경쟁력 상승을 위한 투자 단행
- 미국 대표 인기 스포츠인 NFL ‘목요일 밤 경기’ 독점 중계권 체결도 같은 맥락

- MGM은 거대 OTT 업체에 속해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독립 스튜디오로 지난 수년간 주요 스트리밍 사업체의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음. MGM은 '007시리즈' 영화 '터미네이터', '로키', 드라마 '파고', '시녀이야기' 를 비롯해서 4,000여개가 넘는 IP를 보유.

3) 워싱턴 DC 검찰, 아마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 아마존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외부 판매자(3P)에게 매출 30%를 수수료로 청구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아마존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혐의
- 아마존은 외부 판매자들이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반박. 반독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 하면 오히려 가격인상 요인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하여 반독점법의 핵심 목적에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
- 이번 소송이 연방법이 아니라 워싱턴 DC 법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은 소송 결과의 영향이 제한됨.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위반 소송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참여하여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됨
-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이번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아마존의 관행에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 있었다면 관련 소송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 되었어야 하며, 아마존의 3P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 해당 내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요인.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6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1년 6월 4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